



2022 서울 서커스 페스티벌

서커스 카바레

9. 9.(금) - 9. 12.(월)

문화비축기지

주최 · 주관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협력 문화비축기지 후원

AMASSADE
DU QUÉBEC
EN CORÉE

ON
WAVE
TOGETHER

Québec

서울문화재단 소개

2004년 출범한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서울을 위해 문화예술의 다양한 가치를 발현시키고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선도적 문화예술기관입니다.

서울문화재단 거리예술축제팀은 국내 최초의 거리예술-서커스 창작 공간인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리 예술과 서커스 분야의 작품 제작 지원, 유망 예술가 양성, 예술가 및 시민을 위한 예술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거리예술축제, 서울 서커스 페스티벌, 서커스와 거리예술 시즌 프로그램 등 일상과 예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예술과 도시와 시민이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풍성한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합니다.

행사 소개

서울 서커스 페스티벌 **<서커스 카바레>**는 2018년 문화비축기지에서 첫 선을 보인 국내 유일한 서커스 축제입니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의 작품 제작 지원을 받은 단체의 신작과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해외단체의 작품을 비롯해 서커스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전시 등을 운영합니다. 반면 다수의 축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국내 중소규모 작품으로 구성된 서커스 시즌 프로그램 **<서커스 카라반>**은 축제 기간이 아닐 때에도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만나고 즐겁게 서커스를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공간위치도

- 화장실
- 장애인 화장실
- 엘리베이터
- 음수대

※ 유모차와 휠체어, 우산은 안내동에서 대여할 수 있습니다.
 ※ T6 휴관안내: 시민의 안전과 시설환경을 위한 보수 공사를 실시합니다. (카페 포함 T6 이용 불가)



공연 선택 참고사항

“가족과 함께 보기 좋은 공연은 뭐가 있을까요?”
 “아이가 아직 어린데 공연 중 깜짝 놀랄만한 장면이 있을까요?”
 공연의 특징을 미리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공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이콘으로 표현했습니다.



관객 참여

공연자가 무대로 관객을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 호응

관객의 호응이 클수록 공연 분위기도 UP! 공연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광 주의

공연 장면 중 강한 조명 효과로 인해 감광성 뇌전증 혹은 광과민성 발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관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 주의

공연 중 큰 음향 효과로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공연 선택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

어린이도 쉽게 이해하고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공연입니다.



폭력성

공연 중 일부 폭력적인 장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플로세움
Polosseum



단체명	서남재
러닝타임	30분
일시	9/9(금) 18:00, 9/11(일) 13:00



공연 소개

두려움에서 환희까지

우리는 불안을 벗 삼아 살아간다. 내면엔 흔들림이 존재하고, 흔들림 속에서 결심해야 하는 순간 두려움이 가득 차오른다.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때, 우리는 비로소 출발점에 선다. 폴을 올라가는 동안 두려움과 떨림, 불안, 흔들림을 겪고 마침내 결심하고 정점에 올라서면 전율과 함께 환희가 찾아온다.

단체 소개

'서남재'는 차이니스 폴을 기반으로 광대의 몸짓과 새로운 장면을 연구하는 거리공연예술가다. 현재 1인 공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와 협업해 작품을 창작할 계획이다.

연출 및 출연 서남재



경사
Kyeongsa



단체명	ㄱ사(기역시웃)
러닝타임	35분
일시	9/11(일) 18:00, 9/12(월) 18:00



공연 소개

경사까지 가는 경사진 길

요즘 청년들은 집, 인간관계, 결혼, 꿈 등 윗 세대는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을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포기한다. 우리 또한 사회의 청년 구성원으로서 겪고 있다. 각자가 맞닥뜨린 현실의 고민을 삶에서 가장 극적인 축제의 순간인 결혼식과 서커스를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요?'

단체 소개

'ㄱ사(기역시웃)'은 초성 기역 시웃으로 비롯된 몇 가지 단어를 떠올리며 만들어졌는데, '개성' 있는 예술작업을 통해 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계속해서 '감사'할 일이 생기길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다. '예술은 행위자뿐 아니라 함께 향유하는 대상이 있으므로 완성된다.'라는 철학을 새기며 서커스, 무용, 연극, 음악 등 각기 다른 예술 장르를 융합해 공연예술의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존과는 다른 색다른 공연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다.

창작 및 출연 김선혁, 김준봉, 박상현, 박재영, 최수진 음악 신세민
오퍼레이터 조민상



빛춤
Be;choom



단체명	포스
러닝타임	50분
일시	9/9(금) 18:00, 9/10(토) 16:00 *사전 예매

공연 소개

나를 비추다.

<빛춤>은 개개인의 내면 이야기를 담은 옴니버스 공연이다. 현실 세계와 공상 세계를 연결해 주는 물체인 차이니스 폴, 에어리얼 실크, 씨어 휠은 다양한 시청각 요소와 함께 장면의 조화를 이룬다.

단체 소개

'포스'는 융합과 연결을 모태로 한 뉴폼아트(New Form Art) 창작그룹으로 2016년 창단했다. 현대의 무한한 가능성과 예술 고유의 가치가 효과적으로 조화된 콘텐츠를 선보여 예술에 대한 시선과 접근 방식의 변화를 선도하고자 한다. 포스만의 독보적인 작업 세계를 선명하게 만들어 가고 있으며 공연예술의 새로운 형식과 기술 그리고 공간 확장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출 이영호 공동창작 및 출연 김선혁, 김찬양, 이영호 음악감독 백하형기
악사 최문혁, 백하형기 조명 디자인 및 감독 김광훈 기술 스태프 조민상



돌아버리겠네
Dizzy



단체명	코드세시
러닝타임	35분
일시	9/9(금) 16:00, 9/10(토) 13:00



공연 소개

“돌아버리겠네...”

“돌아버리겠네...” 나지막이 입 밖으로 튀어나온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돌고 있는 중이다. 지구는 자전하고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지구에 발붙인 우리도 당연히 돌고 있다. 돌아버릴 것 같은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돌고 있다. 내가 돌아버린 건지 세상이 돌아가는 건지... 언제부터일까? 돌아버린다는 것이 괴로워졌던 게.

단체 소개

'코드세시'는 2019년 설립해 융·복합, 다원적인 접근으로 작품을 창작하며 창작자의 세계를 경계와 구분이라는 제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발칙하게 표현하는 데 초점을 둔다. 서커스, 움직임, 신체, 오브제를 창작의 재료로 적극 활용해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현재'의 이야기를 이미지로 구현한다.

연출 권해원 출연 김현기, 최재영, 김지혜, 권해원 음악 조은희
오퍼레이터 변여울



잇츠굿
It's Good



단체명	봉앤줄
러닝타임	40분
일시	9/9(금) 17:00, 9/10(토) 14:00



공연 소개

삶에 대한 위안과 희망의 순간, 우리 마음의 소리 It's good!
 땅 위 한 줄, 하늘 위 한 줄, 바람에 날리는 하얀 두루마리. 각자의 소망을 적은 종이를 모으고 한 남자를 맞이하는 사람들. 땅 위의 줄타기를 마친 남자는 사람들의 소망 두루마기를 걸치고 더 높은 줄로 오른다. 높이 6m, 거리 24m 하늘 위 또 한 번의 줄타기를 마친 남자가 모두의 소망을 하늘로 날려 보낸다. 삶에 대한 위안과 희망의 순간, 우리 마음의 소리 It's good!

단체 소개

서커스 창작집단 '봉앤줄'은 화려해 보이는 서커스 기예 이면에 인간의 나약한 부분에 주목하고 서커스 기예와 다른 장르의 결합을 통한 동시대 서커스 창작을 목표로 한다. 특히 서커스 기예의 상징적인 존재감을 통해 무대 위 '헤테로토피아'를 구현하고 함께 공유하며 그 안에서 바라보는 나의 일상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나간다.

연출 및 출연 안재현 피아노 조은희 현악 윤현로 기술감독 남기현
 스테프 이유근, 고기현, 양지윤, 박형욱 PD 문수빈

만일 우리들이
What If



단체명	2022 서커스 펌핑업
러닝타임	35분 관람연령 8세 이상(13세 이상 권장)
일시	9/11(일) 14:00, 9/12(월) 14:00 *사전 예매



공연 소개

우리는 괴물이었으며, 인간이다.
 네 명의 여인이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하며 마음속에 자리한 괴물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테오도라 고스의 말처럼, 괴물은 항상 우리 안에 존재했으며 우리는 스스로가 언제나 괴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가장 섬뜩하다. 우리는 언제나 괴물이 될 수 있기에. 만일 우리가 겉모습이 아닌 진짜 우리를 보여준다면 어떨까? 만일 우리가 서로를 돌볼 수 있다면, 만일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기 전에 질문할 수 있다면, 만일 우리가 용기를 낸다면, 만일 우리들이.

단체 소개

'서커스 펌핑업'은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에서 컨템포러리 서커스 유망예술인 양성을 위해 교육·창작·발표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만일 우리들이>는 캐나다를 거점으로 활동 중인 서커스 전문가 잇첵 비루에가와 제레미 로버트가 4명의 서커스 펌핑업 참가자와 함께 만든 작품이다.

연출 Itzel Viruega **조연출** Jérémie Robert
 출연 김은주, 김혜수, 박우리, 왕웨이 **기술감독** 유성희
기술조감독 양정현 **무대감독** 조장호 **기술협조** 차정호 **의상** 박소영
음악 조은희 **통역** 원지영 **기획** 김미지 **후원** 주한퀘백정부대표부

도시조류도감
Guide to Urban Birds



단체명	컨컨
러닝타임	45분 관람연령 8세 이상
일시	9/11(일) 14:00, 9/12(월) 14:00 [9/24(토) 18:00, 9/25(일) 18:00]- *사전 예매



공연 소개

도시조류 생태 다큐멘터리 서커스 쇼 도시, 조류, 도감!
 2000년대를 풍미한 자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도시조류도감>은 도시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새들의 이야기를 우화와 블랙코미디로 풀어낸다. 이야기 속에서 새들은 각자가 처한 다양한 실존적 위기와 마주하고 종국에는 삶의 터전이 허물어질 위기에 처하는데... To be or not to be. 그들은 오늘도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단체 소개

'컨컨'이란 Contact와 Connection 두 단어의 첫음절을 딴 이름으로, 서로 다른 것들의 연결 지점과 접촉 지점에 대해 연구하는 공연예술단체다. 이는 사상이 될 수도 있고 장르, 개인, 몸 등 범주화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해당한다.

연출 김준봉 **출연** 김준봉, 이수연, 최수진, 최재영 **음악** 신세빈
미술 이승이 **드라마티그** 원지영 **나레이션** 백민경 **무대크루** 김선희, 한병운

숨
Breathe



단체명	공연창작집단 사람
러닝타임	35분
일시	9/11(일) 17:00, 9/12(월) 17:00 9/24(토) 17:00, 9/25(일) 17:00

공연 소개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비추다.
 크레인에 연결된 30m의 밧줄. 그 위를 맨몸으로 오르는, 삶과 죽음의 경계 위에 놓인 한 사람이 있다. 그의 힘겨운 오름은 때론 치열하고 때론 위태롭다. 오름이 계속될수록 관객은 한 숨 한 숨 멈추고 내쉬며 그 힘겨운 여정을 함께할 것이다. 어쩌면 그의 오름은 우리의 사는 모습과 닮았기에.

단체 소개

'공연창작집단 사람'은 현대사회 속 개인을 바라보고, 개인의 심상에 집중해 작업하는 공연단체다. 현재의 '삶' 그리고 '삶과 맞닿아 있는 무언가'를 주된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신체 행위와 서커스 행위를 주된 예술언어로 다루며 다양한 감각, 장르와의 결합을 통해 단체만의 예술성을 구축해나가는 중이다.

연출 및 출연 서상현 **무대감독** 차진광 **오퍼레이터** 박범수
협력PD 이현정

해피해프닝
Happy Happening



단체명	공간 서커스살롱
러닝타임	45분
일시	9/24(토) 15:00, 9/25(일) 15:00



공연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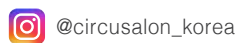
서커스 요정들의 엉뚱하고 불편한 일상탐구

우리의 답답한 일상에 엉뚱하고 재기발랄한 4명의 서커스 요정이 나타났다! '손을 제외한 신체를 활용해 컵을 옮겨라', '파도 소리 속 에어리얼 체인', '타이트와이어 위에서 펼쳐지는 유쾌한 패션쇼', '모두 함께 으쌰 으쌰 차이니즈 풀을 세우자!', '꿈속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에어리얼 실크', 다양한 서커스 퍼포먼스로 상상력을 키우고 일상에 재미를 선사한다.

단체 소개

'공간 서커스살롱'은 엉뚱하고 건강한 삶을 만드는 서커스 커뮤니티다. 최근에는 어린이 서커스 공연/체험 프로그램, 건강한 서커스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창작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

작 및 연출 서상현 출연 엄예은, 우보람, 최수진, 서상현
무대감독 및 오퍼레이터 차진광 협력PD 이현정



해원(解願)
Wish



단체명	코드세시
러닝타임	25분
일시	9/24(토) 16:00, 9/25(일) 16:00 *사전 예매



공연 소개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기를

<해원(解願)>은 우리의 전통 사머니즘 굿과 서커스 씨어 휠 그리고 바이올린과 기타연주를 버무려 만든 작품이다. 저마다의 아픔과 고민을 각자가 의지하는 누군가에게 온몸과 마음을 다해 이야기하듯 한을 풀어내며 기원하는 한 남자의 몸짓과 서커스를 굿이라는 이미지로 풀어낸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에게 위로의 손길이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단체 소개

'코드세시'는 2019년 설립해 융·복합, 다원적인 접근으로 작품을 창작하며 창작자의 세계를 경계와 구분이라는 제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발칙하게 표현하는 데 초점을 둔다. 서커스, 움직임, 신체, 오브제를 창작의 재료로 적극 활용해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현재'의 이야기를 이미지로 구현한다.

연출 및 출연 권해원 연주 윤현로



엔바
ENVÀ



단체명	아메르&아프리카 서커스 컴퍼니 국가 스페인(카탈루냐)
러닝타임	50분
일시	9/9(금) 16:00, 9/11(일) 16:00, 9/12(월) 16:00 9/17(토) 16:00, 9/18(일) 16:00



공연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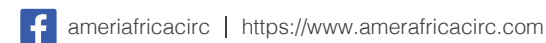
250kg의 볏짚과 125kg의 인간의 무게 사이에서
두 사람이 그리는 인간관계의 특성

카탈루냐어로 'ENVÀ'는 공간을 나누는 얇은 벽을 의미한다. 현대인은 대부분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의 벽을 쌓은 채 살아가면서도 한편으로 늘 자유를 갈구한다. 우리가 서로를 자유롭게 느끼고 소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인 벽을 허물고 내적인 감정의 교류, 그로 인해 생겨나는 아름다움을 즐기면 된다는 메시지를 서커스 기예인 아크로바트와 핸드투핸드를 활용해 전달한다.

단체 소개

'아메르&아프리카 서커스 컴퍼니(Amer i Àfrica Circ Cia)'는 2015년 카탈루냐 서커스 축제인 Trapezi Reus에서 초연된 작품 <Bunkai>를 통해 역동적이고 독창적이며 유머가 담긴 그들의 스타일을 찾기 시작했다. 7년간 기예 훈련을 하면서 3개의 단편 서커스 작품을 만든 후 그 동안의 아이디어를 집약한 작품 <ENVÀ>를 제작했다.

원작 컨셉 Amer, Àfrica 출연 Àfrica Llorens, Raimon Mató
기술 Paula Bahi 조명 Ivan Tomasevic 원작 음악 Karl Stets
의상 Paulette Sanmartin
후원 IRLI Institut Ramon Llull, INAEM, Generalitat de Catalunya;
Coopdecirc SCCL, Associació de Professionals de Catalunya;
De Mar a Mar (Interreg POCTEFA)



도서관사서
The Librarian



단체명	극단 엄지발가락 국가 캐나다
러닝타임	50분 관람연령 5세 이상
일시	9/9(금) 19:00, 9/11(일) 19:00, 9/12(월) 19:00 9/17(토) 19:00, 9/18(일) 19:00 *사전 예매



공연 소개

엉뚱한 도서관사서 폴-에밀 두물랑과 떠나는 신비한 모험

25년째 마을 도서관에서 사서 일을 해 온 폴-에밀 두물랑. 매사 진지하고 자긍심이 있으나 한편으로 자주 긴장하고 때때로 서툰 면모를 보인다. 선반 위 책은 흠결없이 정돈돼 있어야 하며 늘 제 자리에 꽂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책 한 권을 읽고 책 속 인물에 깊이 동화된 그는 갑자기 매우 생기 넘치는 인물로 변하는데.. 브레이크댄스, 비트박스, 아크로바트, 저글링 등을 통해 책 속 인물로 변한 그를 만나 보자.

단체 소개

2013년 창단한 '극단 엄지발가락(Le Gros Orteil)'은 어린이 대상 광대, 연극, 서커스를 결합한 양질의 공연을 창작하는 단체다. 공연에 생기를 불어넣는 즉흥성을 기초로 하되 감성과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어린이는 넘치는 상상력과 즉흥적인 면이 있기에 여행과 꿈을 주제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컨셉 및 감독 Marie-Hélène D'Amours 출연 Hippolyte
기술 및 조명 Julie Laroche 의상 Élisabeth Cognard
음악 Hippolyte, Sylvaine Arnaud, Damien Ropars



인스턴트
Instante



단체명	후안 이나시오 톨라	국가	아르헨티나-프랑스
러닝타임	25분	관람연령	8세 이상
일시	9/9(금) 20:00, 9/11(일) 20:00, 9/12(월) 20:00 9/17(토) 20:00, 9/18(일) 20:00 *사전 예매		



공연 소개

씨어 휠의 원심력과 회전 움직임에 대한 탐구

데르비시교의 탁발 수도승에게서 영감을 받아 창작한 <인스턴트>는 반복적인 회전이라는 단순한 움직임으로 무아지경에 이른 육체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호기심으로 부터 시작했다. 휠의 나선형 움직임으로 인해 시야는 점점 흐릿해지고 생존 본능이 깨어나며 몸은 점점 무한한 번곡점에 가까워지는 상태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질문하고, 우리를 최면의 경계로 이끌어 시간과의 관계에 혼란을 야기하며 초월성과 인간성을 반영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 데르비시(Dervish): 극도의 금욕 생활을 서약하는 이슬람교 집단의 일원으로 예매 때 빠른 춤을 춤

단체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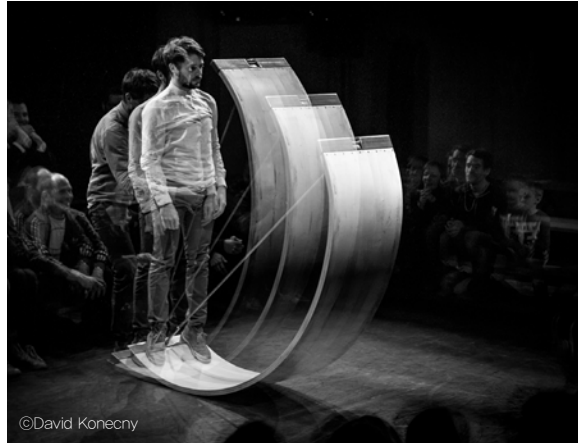
서커스 예술가이자 무용수인 후안 이나시오 톨라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Company MPTA-Mathurin Bolze에서 2편의 공연을 동료들과 함께 제작하며 경험을 쌓은 후 그의 단독 공연인 '인스턴트'를 창작했다. 2019년 씨어 휠을 연구하기 위해 '7Bis'라는 단체를 창단했고 서커스 장르의 성장과 홍보를 위해 유럽과 남미를 오가며 다양한 협업을 시도하고 있다.

창작 및 출연 Juan Igancio Tula 조명 Jérémie Cusenier
음악 Gildas Celeste 의상 Sigolène Petey 기술 Estelle Lemberth
프로덕션 Cie 7Bis, Triptyque Production, Andrea Petit-Friedrich

Thanks to: Compagnie Les mains, les pieds et la tête
Residencies & Co-productions: Espace Périphérique, Parc de La Villette - Mairie de Paris MA
Scène Nationale - Pays de Montbéliard Le Festival Utopistes in partnership with Les Nouvelles
Substances et la Maison de la danse, Lyon.

www.cie7bis.com

3D



단체명	컴퍼니 H.M.G.	국가	프랑스
러닝타임	40분	관람연령	5세 이상
일시	9/10(토) 15:00, 9/11(일) 15:00, 9/12(월) 15:00 9/17(토) 17:30, 9/18(일) 17:30 *사전 예매		



공연 소개

서커스 오브제를 사이에 둔 신체와 사운드의 상호작용

무대 중앙엔 어른 키만 한 아치 형태의 나무 널빤지가 쇠줄로 이어져 있다. 세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놓여진 무대를 세 면에서 관객이 에워싸고 있다. 예술가는 이 도구와 하나가 되기도 하고 감싸기도 하고 횡단하기도 하며, 음향은 맞비거나 공명하고 진동한다. 이 독특한 서커스 도구와 함께 펼쳐지는 아크로바틱 공연은 물질, 공간, 그리고 그 외의 요소를 유희하며 어우러진다.

단체 소개

단체명 H.M.G.는 프랑스 툴루즈의 서커스 학교인 '리도(Le Lido)'의 설립자 중 한 명인 앙리 기사의 이니셔티브에서 따왔다. 서커스가 단순 기예를 넘어 예술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해 기존의 문법을 타파하고 서커스의 황금기를 일궈낸 '리도'의 정신을 이어받아 H.M.G.는 다양한 형태의 컨템포러리 서커스 공연을 창작하고 있다.

컨셉 및 감독 Jonathan Guichard 출연 Jules Sadoughi, Mikaël Le Guillou
기술 Sébastien Dehaye 구조물 Jonathan Guichard, Etienne Manceau, Cyril Malivert, Jean-Victor Bethmont, Franck Breuil

후원 Production déléguée (mai 2016-mai 2018): CIRCA, Pôle National Cirque, Auch Gers Occitanie
Co-productions with residencies: Bleu Pluriel, centre culturel de Trégueux; CIRCA, Pôle National Cirque, Auch Gers Occitanie; Pôle Régional des Arts du Cirque des Pays de la Loire (Clé du Cirque Marcel Manceau et festival Le Mans fait son Cirque); Le carré magique, pôle national cirque en Bretagne; Théâtre de l'Agora, Scène nationale d'Evry et de l'Essonne.
With the support of SACD; Processus cirque, du programme européen POCTEFA; De mar à mar, de la DRAC Occitanie et de l'ENSIACET.

f cieHMG

움직여, 무브!
Physical Theater Workshop



다재다능한 예술가 이폴리트의 신체극 워크숍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슬랩스틱과 광대 연기를 직접 체험해보고 루프 페달을 이용한 비트박스과 브레이크 댄스를 배우며 자신만의 움직임을 발견해보세요.

일시	9/9(금) 14:00, 9/10(토) 12:00	
러닝타임	60분	정원 15명
참가대상	5세~12세 *보호자는 주변에서 참관 가능	
신청방법	네이버 예약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매	
구성	슬랩스틱, 광대 연기, 비트박스, 브레이크 댄스 등	
강사명	이폴리트(캐나다) *통역 진행	

단체 소개

2013년 창단한 '극단 엄지발가락(Le Gros Orteil)'은 어린이 대상 광대, 연극, 서커스를 결합한 양질의 공연을 창작하는 단체다. 공연에 생기를 불어넣는 즉흥성을 기초로 하되 감성과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어린이는 넘치는 상상력과 즉흥적인 면이 있기에 여행과 꿈을 주제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서커스 예술놀이터 Circus Arts Playground



세상에 하나뿐인 서커스 예술놀이터 조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서커스 활동을 통해 다양한 예술적 경험과 표현, 상상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창의적인 서커스 예술놀이 프로그램입니다.

일시	9/9(금), 9/11(일), 9/12(월) 12:00, 13:00, 14:00, 15:00	
러닝타임	40분	정원 80명
참가대상	5세 이상 *유아 및 초등 저학년(5~10세 이하)은 보호자 동반 필수	
신청방법	오전 11시 30분부터 안내부스에서 현장 예매 *1명당 최대 4명 신청 가능	
구성	줄타기, 에어리얼 실크, 아크로바틱, 저글링	

단체 소개

'사람을 가지 있게, 일상을 즐겁게,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미션을 가진 '(주)점퍼즈'는 사람의 마음속에 예술적 로망을 이뤄줄 수 있는 예술교육 서비스 개발과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다.

● 전시

거리예술X서커스 이동형 전시[수집가들]
Street ArtsxCircus Movable Exhibition
[Collectors]



단체명 창작그룹 노니
9/9(금), 9/11(일), 9/12(월) 12:00~18:00
일시 9/10(토) 12:00~17:00
*도슨트 13:00, 15:00, 17:00 (단, 9/10(토)에는 13:00, 15:00 만 운영)
도슨트 예약은 전시 장소에서 가능하며, 17:00에는 영어로 진행 가능합니다.

전시 소개
컨테이너에 모인 거리예술과 서커스의 목소리
'창작그룹 노니'는 2018년부터 서커스 분야의 국내외 종사자, 비종사자 인터뷰와 관련한 자료 수집을 시작했다. 이후 거리예술 분야로 확장해 사운드, 영상, 이미지, 텍스트, 현장기록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정리하고 관객이 다채로운 형식으로 구현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전시를 제작했으며 컨테이너 이동형 전시와 온라인-웹사이트를 통해 관객을 만나고 있다.

단체 소개
2006년 무대 미술, 전통 연희 분야의 예술가가 모여 한국 연희 미학의 재발견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창작그룹 노니'는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 작업자가 각각의 프로젝트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작업자와 협업하며 경계 없는 작업을 하는 단체다. 최근에는 거리예술과 서커스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아카이브 작업과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작업 형식을 실험하고 있다.

예술감독 김경희 **리서치** 이미경, 김민경, 송상미, 김보령, 박다솔
리서치 및 제작 지원 도민주 **테크니컬 매니지먼트** 윤진상
사운드 곽소민 **비디오** 박준석 **일러스트** 김유
증강현실 창조연구소 **샷** 외관도안 김윤지 **제작** 그루비 스튜디오
번역 조용경 **그래픽** 김보라 **웹** 피플 앤 워크

www.archiveground.com

● 영화

태양의 서커스: 월드 어웨이
Cirque du Soleil: Worlds Away

일시 9/9(금) 19:00
러닝타임 90분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영화 소개
개봉 2012 **장르** 판타지 **감독** 앤드류 아담슨

주인공 미아는 우연히 보게 된 서커스에서 환상적인 공연을 선보이는 공중 곡예사에게 한눈에 반한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갑자기 곡예사는 줄에서 미끄러지고 바닥으로 추락해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 그를 도우러 일어난 미아 역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고 두 사람은 서로를 찾으며 차례로 7개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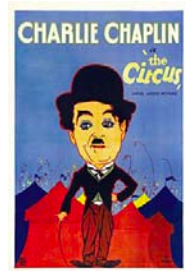


서커스
The Circus

일시 9/11(일) 19:00
러닝타임 70분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영화 소개
개봉 1928 **장르** 코미디 **감독** 찰리 채플린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던 떠돌이 찰리는 우연히 서커스단 근처를 지나다 소품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된다. 그곳에서 일하며 자신이 짝사랑하는 메르나가 공중곡예의 일인자인 렉스와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보며 서커스단을 나온다. 밤이 되어 길에서 혼자 불을 피고 있던 찰리는 서커스단에서 도망쳐 나온 메르나를 만난다. 찰리는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시 렉스와 결합시켜 주는 것 밖에 없음을 절감한다. 찰리의 도움으로 사랑을 찾은 렉스와 메르나는 결혼과 함께 다시 서커스단을 찾는다. 그들이 서커스단을 따라 다음 행선지를 향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던 찰리는 다시 새로운 방향의 길을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딛는다.



● 서커스 카바레&카라반을 만든 사람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창기
문화진흥본부장 백승우
축제기획실장 이규승
거리예술축제팀 강득주, 조권주, 김영규, 류한영, 양시내, 서금슬, 최호범, 박수진, 우민혁, 백우석, 손다원

공연 홍보 추수연, 이현정
special thanks to 조동희, 김상근

기술

기술감독 유성희
기술조감독 양정현
무대감독 방태현, 이상호, 조장호, 한진규
무대크루 김창관, 박민식, 박리안, 오채령, 유재현, 조형진, 송재혁, 전우형, 황이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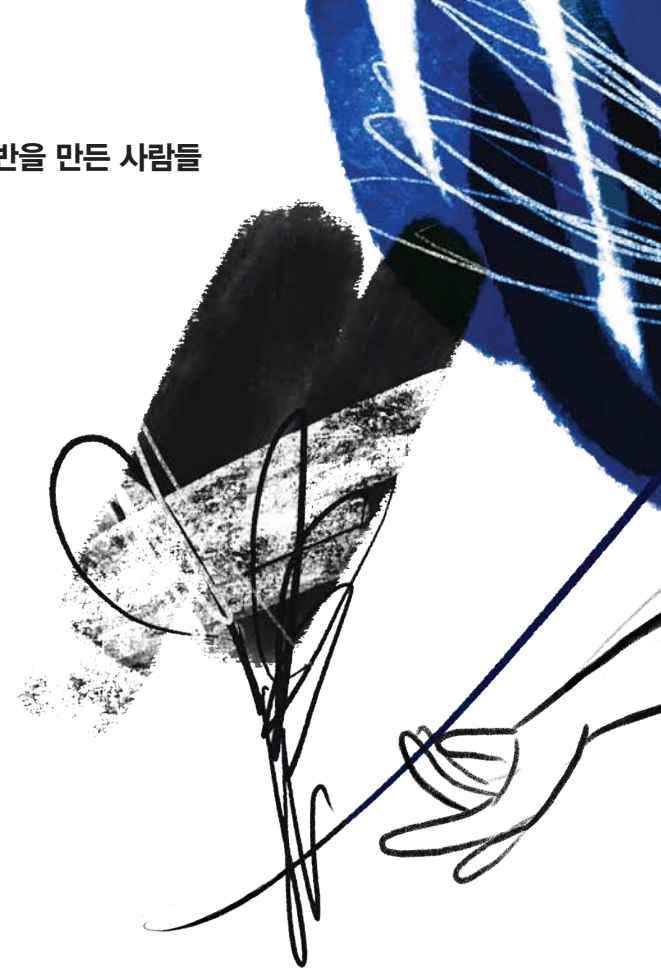
무대제작 시스템 그루비
톤 웨이브, 브라이트 라이트, 매드케이, 화이트비전

더 웰컴

총괄 운영 유리해
홍보 임지인, 박진서, 이진영, 박수경, 김승한, 장성문

문화비축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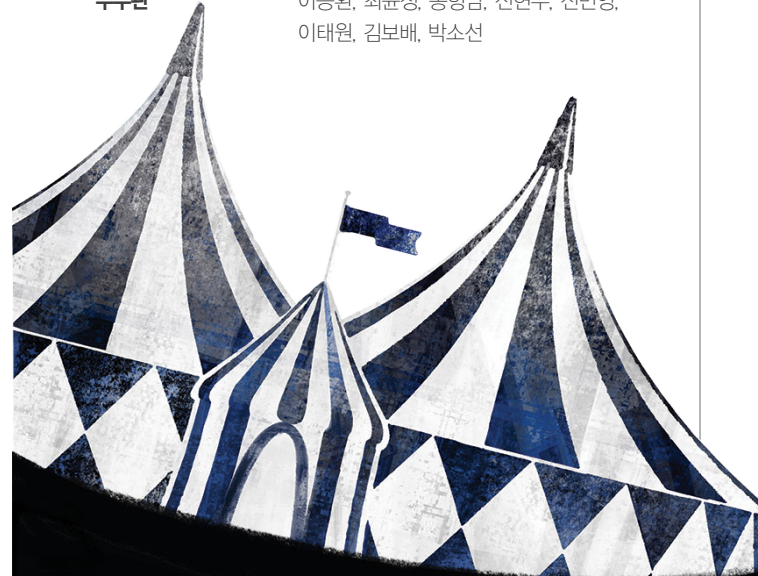
관리사무소장 김호석
팀장 정동열, 백인호
주무관 이승환, 최윤정, 송형남, 신현우, 신민영, 이태원, 김보배, 박소선



함께하신 분들

디자인 주식회사 더블유프로젝트
일러스트 배지선(Swan)
영상 썬데이핑퐁클럽
사진 스튜디오 KENN
애니메이션 김가은
통역 김민경, 이유리, 김유리, 김영지, 김진숙
번역 오미영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www.sfac.or.kr
문의 02)6203-2537, 02)3437-0099



2022 서커스 시즌 프로그램

서커스 카라반 '가을'

9. 17.(토) - 9. 25.(일) 주말

문화비축기지

